

[독학 재수 A to Z]

1. 필자 소개
2. 재수 Q&A
3. 과목별 공부 Tip
4. 최상위권 학생은 알고 있는 9가지 내용
5. 인증 자료

<1.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수능에서 '23344(언미영물I지I 등급) / 89 85 75 70 (언미물I지I 백분위)' 라는 당시 만족하지 못했던 성적과 수시 6광탈을 하고 독학 재수를 통해 2025 수능에서 '21111(언미영물I지I 등급) / 94 98 99 100 (언미물I지I 백분위)' 라는 서울대 공대, 지방 의대 성적을 받은 나름 만족스러운 재수를 한 학생입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된 글을 찾지 못하여 모든 정보들을 따로따로 찾아서 정리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역 시절 실력은 국어, 수학 2등급 커트라인 영어 2~3등급, 물리 2등급 커트라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량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내공(실력)에 따라 공부법이 다르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수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입니다.

공부법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글의 모든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은 나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 해볼까?'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비격식체로 적었습니다.

<3. 과목별 공부 TIP>

[국어]

1. 타이머를 버려라.

눈알 굴리기를 통해 문제를 맞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 속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해야 진정으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

문제집에 있는 추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눈알을 굴려 가며 푸는 것은 독해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발악할 때 독해력이 오른다.

2.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

조금이라도 뜻이 헛갈리면 바로바로 사전을 통해 뜻과 예문을 익힌다.

지문 속 단어의 뜻만 제대로 다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건 휘어어어얼씬 쉬워진다.

3. 이해하기.

국어는 지문 속 내용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 '이해가 최고의 암기다.'라는 말처럼 지문 속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지고 문제는 풀린다.

이해하는 것도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기출에 있는 수많은 지문들을 통해 천천히 하나씩 이해하는 힘을 길러라.

4. 기출 문제 풀기.

사설 콘텐츠 (이감, 상상, 바탕, 한수 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험지 하나에 추천, 수억을 쓰는 평가원 지문보다 좋을 수는 없다. 평가원 지문만 해도 차고 넘치니 다른 것 보다 평가원 지문을 먼저 하자.

(필자도 9월까지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원 기출만 풀었는데, 전부 다 끝내지는 못했음.)

<추천 교재>

너를 국어 일등급으로 만들어주마 (국일만) - 범작가 (2025 개정판부터 '국정원'으로 이름 변경)

국어의 본질을 말해주는 책. 해당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국어의 본질이다.

<추천 강사>

심찬우T

국어의 본질을 가르치는 강사. 유튜브에 수업 영상이 많으니 몇 개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듣는 것 추천.